

族譜序

夫譜法之傳世自三代所以系王統以視教民化成於辨昭穆正上下而惟宋興百餘年眉山蘇氏始修焉而氏族之譜所由起也其曰觀吾譜者孝悌之心油然而生程子曰收宗族厚風俗使人不忘本爲其親々而作也審矣是故舉天下爲是役者莫不以此起論而叙其事則以視文治休明以後察於人倫者盖可想矣逮夫我東中葉始遂明焉其間文獻之無徵者皆闕焉就其詳立規模及其汗漫浩渙反有文勝之弊者以寓筆削之權有輔於風化則實昉於春秋之義又何其盛耶今吾譜之作及於九次其間世代之漠爲終始於三五百年間其疆域之變風教之殊不以前例逆度而雖有崇古談義之士欲續夫前烈而有辭於來世則亦甚疎矣雖然忽然無視而置之無有之地則親々之道絕矣舉而從之則先哲立法之嚴十無二三焉以爲斟酌損益之有一道從俗淳漓而以遂其所尚來者受之去者勿追則又有難言者矣夫至親父子兄弟也以至親及於親疎有倫一視同仁者祖宗之心也爲子孫者體祖宗同仁之萬一而使千枝萬派同歸於根源者惟此修譜一事而已古之不逮淳而已故其終也明今之不逮邪而已故其終也廢淳邪之際不可不辨也今拘於法限於勢雖不爲盡古之道然莫不盡其義而充其責者子雖不肖父母無棄

子也百世雖遠祖先同仁則浸淫於風潮之泛濫背親離屬至於路人之不如與夫
無端致疑於先墓忘先無耻者尤其不思之甚而回悟乎昔日父祖之諄諭無所不
至皆洗心易慮同歸于一視同仁之懷則幸孰大焉此吾譜之所以作也嗚呼譜々
吾族也自父而至子自子而至孫雖百世脉絡相通其無天理相感之理則禽爾獸
爾蘇氏有何思而以孝悌興起於修譜之日也程子有遐想而以敦宗族厚風俗爲
不忘本者耶惟吾黨所以深戒而勉焉也云爾

〈解說〉

무릇 譜法の傳世함이 三代(夏殷周)로부터써 王統을 이어 民으로 하여금 昭穆을 辨하고 風俗을 正함에
成化케 함을 視함이니 오죽 宋興百餘年에 眉山蘇氏 비로소 修하여 氏族의 譜 此로 由하여 創하였으니
거기에 말하기를 우리 譜牒을 觀한者 孝悌의 마음이 油然而生한다 하고 程子云하되 宗族을 收하여 風
俗을 厚케 함이 人으로 하여금 根本을 忘치 않게 함이라 하니 그 親한니를 親키爲하여 作함이 分명한지
라 이러함으로 온 天下사람들이 譜事에 參與하는者 이로써 議論을 起하여 叙事치 아니함이 없은則 文
治함이 太平에 期한後에야 人倫에 察한者 대개 尙想이 된지라 吾東에 逮하여도 中葉에 至하여서사 또
드리어 明하였은則 其間文獻의 無徵한것은 다 闕하고 그 仔細한것만 取하여 規模를 立하였은則 그
汗漫浩渙함에 及하여는 反이 文勝의 敝 有한者 씨筆削의 權을 두어 風化에 도움이 有케 한則 實로 春秋

의義에 昉하니 또어찌 거룩함이아니리오 이제 우리修譜함이 九次에及함에 그世代의漠然함이 三五
百年間에 終始함에 그疆域의變과 風敎의殊 前例에比하여 逆度치 못할지라 비록 옛법을崇尚하고 義
理를지키는人士라할지라도 前烈을 續하여 後世에有辭코저하면 또한虛無한데歸할것이라 그러하나 想
然히 無視하여 그만두기로하면 親親의道 絶하고 그대로從키로하면 先哲의立法의嚴함이 十의二三도
無한지라 斟酌하고 損益함으로써 一道를두어 俗의淳과 漓에따라써 方便만取하여 來한者는 受하고
去한者는 勿追키로한則 또難言할者 有한지라 대저至親은 父子와兄弟니 至親으로부터 親疎가有倫함
에 及하기가지 同仁으로一視하는者 祖宗의心이니 子孫된者 祖宗同仁의心에 萬에一이라도體하여 千
枝萬派로하여금 根源에同歸하는者 오즉修譜一事뿐이니 예에未備한點은 淳朴한것뿐인故로 後에남았으
나 今의不善은 邪한것뿐인故로 來終에 廢할뿐이니 淳하고 邪한際를 可히辨치아니치 못할것이라 이
제法에拘碍하고 勢에억매여 비록古法을다달치는못하나 責을負한者 그義를盡치아니치 못할者 子息은비
록不肖하나 父母난 棄할子無하고 百世는비록遠하나 祖先은同仁으로視한則 虛도이風潮의泛濫에 沉淫
하여 親을背하고 屬을離하여 路人에도 不如함에至함과 다못無端히 疑를先塋에置하여 忘先無耻한者
더욱 不仁함의 甚함이니 지난날 祖與父의 諄諄이 敎誨함이 無所不至함에 回悟하여 다心을洗하고
慮를易하여 한가지로 祖宗의一視同仁하는품에 歸한則幸함어 무엇이 이에大할까 우리修譜의理由가此
에在한것이다 嗚呼라 譜는 우리氏族을譜함이니 父로부터 子에至하고 子로부터 孫에至함이 비록百

世라도 脉絡이相通하는것이니 天理의 相感이無한者 禽爾이며 獸爾이니 蘇氏는 무슨 좋은生覺으로
孝悌로써 修譜의日을 興起하였으며 程子는 무슨 면生覺으로 宗族을敦하고 風俗을 厚케함으로 不
忘本이라 하였을까 오직 우리修譜하는者 마땅히 敬게하여 힘쓸바라하노라

丙辰九月九日 重陽節

後孫 圭憲 謹序

譜序

三代之治하니 只有宗法井制而已라 在家에 有父子兄弟之親하야 推而有繼
禰繼祖大宗小宗之別하야 在鄉에 同其井者其喜憂에 相慶恤하고 其疾病에 相
扶救하니 合是二者而所勉者孝友敦睦이요 所興者禮遜順比니 苟如是면 致臻
郅隆之化不亦易乎아 閭井之制廢에 民無善俗하고 小史系序之政弛에 人不敦
親하니 井制之開廢는 國自有制하야 非黎民之所私요 宗法之修明은 在乎人之
自勉也라 唯自宗法廢後로 欲推其所自出而知其所由分하며 明支派하고 正彝
倫者莫譜若也라 遙繩先武謂之孝요 啓貽后謨謂之慈요 惇宗收族謂之睦이요
舉而措之同胞를謂之仁이요 辨系支明昭穆列九族別親疎하야 而該故實을謂
之典禮니 然則譜者는 因典禮而成하야 以明典禮之資歟아 程夫子曰 管攝天下

人心에 須是明譜系라 하니 信乎譜之於世敎에 大有關焉이라 族之有譜가 自晉
魏로 歷千餘載而 凡同姓同貫者皆同譜라 而惟我全之 崔有譜久遠而逮夫 高
宗丙申大譜하야 其曰世系支派昭穆에 明且詳하니 可謂前人之述備矣로다 自
後로 子姓이 繁衍하고 卷帙이 浩多하니 歷戊辛丙己하고 各修派譜하니 蓋倣於
歐陽公各紀其當紀者也라 嗚呼라 今世何世오 異說이 橫行하고 翔走交趾하야
以一室之親으로 至於路人하니 是可惜也라 此宜由乎譜自譜我自我故矣라 惟
願僉族은 以祖宗之心으로 視宗族則均是子孫이오 以均是子孫之心으로 視宗
族則原是一室之親이니 今日之譜不恨不得大同而踈者親하고 遠者近하야 自
父子兄弟總功之親으로 以至九族히 咸熙於庇庥之餘化矣리니 小史系序之政
이 因吾譜而復明於世하고 宗法之廢가 資吾譜而將興於世也이라 凡我同譜僉
族은 慥々乎 孝慈睦仁則斯母忝先이니 盍相與勉之哉아

△解說▽

三代之	政治는	宗法과	井制가	있을	뿐이다	家庭에는	父子兄弟의	至親이	있고	따라서	繼父繼祖
와	大宗小宗의	區別이	있으며	鄉里에서	그井制를	같이하는者는	哀慶에	相問하고	疾病에	相助하	
니	이二者가	다같이	勸勉하는것은	孝友와	敦睦이오	興起하는것은	禮義와	恭謙이라	진실로	이와	

같이하면 聖賢의 敎化에 따르게함이 또한 容易한 일이 아닌가 井制가 廢하므로 부터 美風良俗
 이 頽敗하고 小史系序의 政法이 解弛함에 人情이 疎薄하게 되니 井制의 開廢는 國制가 自在하므
 로 庶民이 마음대로 할수 없고 宗法을 밝히는것은 各自의 勉勵에 있는것이다 다만 宗法이 廢
 한後로 부터 그本末을 알고 派別을 밝히며 人倫을 바르게 하는것은 族譜가 있을 뿐이다 先德
 을 繼承하는것이 孝가 되고 后孫에게 法을 남기는것이 慈가 되고 宗族을 거두어 親戚하는것이 睦
 이 되고 나아가 同胞에게 널리 베푸는것이 仁이 되고 系支와 昭穆을 分明히하고 九族과 親疎를
 區別하여 故實을 該博히하는것이 典禮가 되는것이니 그렇다면 族譜라하는것은 典禮에 따라 이루
 어져서 도리어 典禮를 밝히는 資料가 되는것이 아니겠는가 程夫子가 말씀하기를「天下人心을 管
 攝하려면 먼저 譜系를 밝힐것이라」하였으니 丁寧코 族譜와 世敎에는 커다란 關係가 있는모양이
 다 族譜의 制度가 晉魏로부터 以後千餘年에 모든 同姓同本은 다같이 同譜하지만 오즉 우리全州
 崔氏의 族譜만이 久遠하고 高宗丙申大譜에 이르러는 世系와 支派와 昭穆이 밝고도 자상하여 可
 謂 前人の 記述한것이 具備되었다 할것이다 그後로 子孫이 더욱繁衍하고 卷帙이 浩多하므로 戊
 辛을 지나 丙己를 當하여 各自 派譜를 닦으니 대개 歐陽公의 이른바「各各 그 記錄할만한것을
 記錄한다」라는대서 모방함이라 아아 지금이 어떤 世上인지 異說이 橫行하고 禽獸가 同處하여 一
 室의 至親으로 路人같이 되었으니 可憐한일이나 이것은 오로지 族譜는 族譜대로 나는 나대로

하는 所致이다 바라건대 諸宗께서는 先祖의 마음으로써 宗族을 돌아보면 모두 같은 子孫이며 같은 子孫의 마음으로써 宗族을 돌아보면 本是 一室의 至親이니 今日の 修譜가 大同하지 못함을恨치 말고 父子兄弟 有服의 至親으로 부터 九族에 이르도록 親疎遠近의 差別없이 先祖의 蔭德과 餘化에 感應할지니 小史系序의 政法이 우리族譜로 因하여 다시 世上에 밝아지고 宗法이 우리族譜를 資料로하여 장차 世上에 興起할것이라 우리 同譜諸宗은 孝慈睦仁에 더욱努力하면 先祖를 더럽히지 않은것이니 서로 勸勉하기바란다

丙辰九月九日 重陽節

後孫 秉宅 謹序

舊譜序

嗚呼修譜重事也此人道之所由立也當國家培養士民郅治興化之際必用此爲務啓人倫於本宗推萬機於孝悌也使其源於一家之政一人之親以至千百代繁衍無算得昭穆之耀然於久遠者實不外乎此則是烏可已也烏可緩也吾崔之祖文成者凡四派而譜之作居八次其發凡立例曾述無餘大都一貫姓者得大同然後百脉歸源而雖有丙申之一番苟合終不源々者皆由於派分議裂物力之關焉然有族者充類而盡義則事必濟矣恨夫周德之防表赫然於前紀大雅之天護繼

發於後代者斷不容毫髮於其間營私者自奔於利勢固守謬見彌世不回遺累於同根之發祥自是局見以氣習相勝滅理害公陷於不義層生詭梗於直幹之所自是不可已乎道理之所在固有待乎後日之幡省而既有埴篲諸翁世々同案者嶺湖兩宗而先有關於丙子繼不講於今日勢或有拘掣抑人事之有未盡也痛恨何限而何幸一派中間有天心誘發乖舛者向義聽惑者確解滄然歸正願入吾譜其質直可徵鬼神宗議以爲時不可失也蒐其單而編牒證其實而勒頑實有辭於萬世乃完稿屬印主倡者重烈鼎鎬也董督始終者秉斗弼熒也能繼用途經紀前後者昇烈圭潤也得人解惑釋然無核者圭元之力居多余以濫竿愧忝任列敢以一言贅之者不億同德監歷代之得失戒路人之相忘可臻於孝悌之域復與於宗盟之地則其於大同也有日矣

己亥肇夏

後孫 春洪 盟乎 謹序

〈解説〉

嗚呼라譜를修함은 重한事이다 이人道の由하야立하는바이니 國家士民을培養하여 郅治興化の時에 至함

에 必히此를用하여 務를삼으니 人倫을 本宗에啓하고 萬紀를 孝悌에推함이니 그一家의政과 一人의 親에 源하여 千百代繁閱함이數할수없음에 至하여 昭穆의耀然함을 久遠에得하는者 實로 此에外치못

할지니 이어찌말며 게을리할까 우리崔의 文成公을 始祖로하는者 무릇 四派인데 譜를修함이 八次
 에居한지라 그凡을發하고 例를立함이 曾述에 餘念이없으나 大都 貫姓을同한者 大同譜를修한後에
 百脉이歸源할것이어늘 비록丙申譜에 一番의苟合은 有하였으나 마침내 源源치못한者 다派가갈리고
 議論이不合하고 物力の關係로由할이라 그러나 族을둔자 各各自己의義務를 盡키로하면 일이반드시濟
 할지로대 恨컨대 周德山防築과 表石이 前紀에赫然하고 大雅의天然護衛가 後代에繼發한者 斷然코毫
 髮을其間에 容치 못할것이어늘 私를營하는者 利勢에 自奔하여 謬見을固守하고 世를彌하여 回치아니
 하고 累를同根의發祥地에까지 遺하고 局見을自是하고 氣習으로써 尙勝하여 理를滅하고 公을害하여
 不義에陷하고 詭梗을 直幹의所自에 層生하는者 이를可히已치아니할까 道理가 昭然한지라 眞實로
 後日의幡省하기나 待할뿐이요 이미 墳簞諸翁하고 世世同案한者 嶺湖兩宗인데 前番丙子譜에 合치못
 하고 이어 今日에까지 講치못하니 勢或拘掣함이有하나 또人事의盡치못한마有한지라 痛恨함을 어찌
 限할까 어찌 다행이 一派中에 天心誘發함이 有하여 乖舛한者 義에向하고 聽에惑하는者 確然히解
 하야 淪然이 正에歸하니 그質直함을 可히 鬼神에告할지라 宗議씨하되 時를 可히失치못할지라하고
 그單을蒐하야 牒에編하고 그實을證하야 碑에勒하니 實로辭를萬世에有할지라 이에稿를完하야 印에屬
 할새 主倡하는者 重烈鼎鎬요 始終을董督하는者 秉斗弼焚이요 能히用途를繼하여 前後를 徑紀하는者
 昇烈圭潤이요 人을得하여 解感함을釋然이하는者 圭元의힘이多한지라 내濫竿으로써 愧히任列에參與되야

敢히一言을贅하는者 不億이德을한가지하여 歷代의 잘잘못을살피고 路人の相忘함을戒하여 可히孝悌의域에至하고 다시宗盟의地에參與한則 그大同譜되는날이 멀지아니하리라

又

孔子曰睦于父母之黨可謂孝矣故君子因睦而合族此盖修譜之義也歐陽公曰世久子孫多則載於譜者不勝其繁諸房子孫各紀其所當紀者使圖牒互見親疎有倫此又派譜之所由本也吾崔之輯修大譜前後屢矣而庚申之譜則我祖考鰲巖公實尸之矣藐余不肖又復嗣輯於今日區々於此安得無所感者乎嗚呼周德山文成公墓所非惟故老之傳相確徵也考諸單卷譜錄及十一卷譜甲龍塚錄與夫後孫遺集家乘不啻明白初無可疑者乃有一家族紛々立異曰爲疑塚至於呈營呈府經歲經年鰲巖公累遭險厄終始抗辨以至立碑守封修牒載錄此庚申譜之所以成也凡爲文成公後孫者豈可忽忘也哉且大雅山大護軍公及文簡公墓所亦爲犯葬子孫破碑慝墳一向滅蹟以致文獻莫徵矣及至近年因雲巖山水組之役勢將全局水沈則彼乃伏罪自白遂得封塋載牒今日譜役烏可已乎此又大護軍公後承之所當紀念者也噫人事之屈伸顯微猶若日之有晝夜月之有晦望盖晝之不能無夜如晦之必有望焉夫三世墓所之沈泯於三五百年者即吾崔之

晦夜也其能先後發露而虔奉如一者亦吾崔之晝望也然則吾門之自屈得伸由
微達顯從可必矣天理不僭責若草木而抑豈非先靈之默佑於冥々也耶但按廉
使公派既同於庚申之譜故不肖再往嶠南留連旬朔必欲會同而爲勢所拘不免
分譜是則不能無憾焉譜既成昭穆井々記錄斤々各派諸族之居何行何名某字
某以至子女之爲幾人母妻之爲誰氏一開卷而燦然如指掌雖千百里之遠十數
世之疎懽然如一堂之席至親之會蘇氏所謂孝悌之心油然而生程子所謂收宗
族厚風俗使人不忘本者直其然乎顧余不肖猥叅首任不可無一言故遂序如此
云

歲丙子肇夏上浣

後孫 寅洪 盟手 謹序

孔子 이르사대 父母의黨에 和睦함을 孝한다 이르나니 故로 君子 和睦을因하여 合族하나니 이것이修

譜의義이다 歐陽公은 이르기를 世代가 멀어 子孫이繁閱한則 모든子孫이 各各自己의가닥을 記錄하여

圖牒으로 하여금 서로보아 親疎의秩序를 整然케함이 派譜의根本이 되는바니 吾崔의大譜을 修輯함

이 前後여러번이되 庚申譜는 我祖考鰲巖公이 實로 主張한지라 不肖한 내 또다시 今日 嗣輯에

區區한者 어찌感想될바 없을까 嗚呼라 周德山 文成公墓所 오직 故老의傳說만 確實할뿐만 아니라

單卷譜錄및 十一卷譜 甲龍塚錄 다못 後孫遺集家乘을 參考하여 明確함을得할뿐만 아니라 根本疑心이

無하거늘 오직 一家族이紛紛히 異心を懷하고 指目하여 疑塚이라하여 營府에까지呈하여 長歲月을

徑하도록 鰲巖公이 여러번 險厄을遭하였으니 終始抗辨하여서 立碑하고 修封하여譜牒에까지 載錄함
 이 庚申譜의지은바라 무릇 文成公後孫된者 어찌可히輕忽히할바리요 또大雅山大護軍公文簡公 墓所가
 또한 犯葬한子孫의 碑를破하고 墳을懸함이되었드니 近年에 雲巖山水組의役에 勢가將次全局이水沉을
 不免케되매 彼犯葬者 伏罪自白하여 드디어 封塋을奉審하여 譜牒까지 오르게되었으니 今日의譜役을
 어찌可히 已하라 이또한大護軍公派의 마땅히紀念할바라 噫라 人事의屈伸과 顯微가有함이 日의晝夜
 와 月의晦望이 有함과如한지라 晝는夜가無치 못할것이요 晦는반드시 望이有할지라 三世墓所가 三五
 百年內에 沈泯함이 곳우리崔의晦夜요 그能히前後에發露되여 如一히虔奉함이 이또한吾崔의 晝望이라
 그런則 吾門의屈로부터 伸을得하고 微로 由하여 顯에達함을 뜻아可히期必할지라 天理의 不僭함이
 賁함이 草木같아 어찌先靈이冥冥한中에 默佑함이않이라 但按廉使公派 이미庚申譜에 合譜한故로 不
 肖가再次嶠南에往하여 旬朔을留連하여 合同코자하다가 勢에拘碍한바되여 分譜를免치 못한則 能히遺憾
 이없지 못할지라 譜이미이루매 昭穆이井井하고 記錄이斤斤한지라 各派諸族이 居何하며 行何며 名某
 며 字某며 子女의幾人과 母妻의誰氏됨이 한번開卷하면 燦然이 指掌같은지라 비록千里의遠이며 十
 數世의疎라도 歡然이一堂에 席을同하여 至親의會같은지라 蘇氏의이른바 孝悌의마음이 油然而生한다
 하고 程子의이른바 宗族을 收하고風俗을 厚케하여 人으로써금 根本을不忘케한다함이 진실로그렇지아
 니하라 돌아보건대 不肖한내 猥히首任에 參與하여 可히 一言을不無타하여 드디어 序함을이같이하노라

又

昔先王之建國也立小史之官使之奠世系辨昭穆於以定民志補風化後世氏族之譜實昉於是矣張子曰忠義之立知其來處眉山蘇氏亦云孝悌之心油然而生譜之有關世教大矣而凡仁人君子孝子賢孫莫不汲々於是豈苟然哉吾崔氏自勝國以來爲吾東巨族以忠烈孝悌文章勲業鳴一世者磊落相望例固可書也至若蒐合修輯以續前人之功傳儒素示敦睦以不替于來世又惡可不勤且慎哉是役也有幸焉者一有感焉者二往在庚申之修刊也吾四派一家不幸判而二之有識者齎恨久矣今自嶠南宗派首倡普合之論而邦內布濩之諸宗聲氣相應一言以契蓋以其天屬非可絕而至親異行路也花樹團圓歡欣和翕之象流溢卷中分而復合疎者愈親幸一也粵自叅判公草成譜後三傳至再癸亥其弓爲三十四而今距百年所而弓總爲五十有三非子孫之益加蕃衍乎此由吾文成公種德積功有以濬發其源也百歲雲仍追慕不已感一也修譜之所終始於墓閣吾祖陟降之靈儼然如對闔宗忱惕未三歲而功告訖此亦有默佑者存乎其間感二也嗚呼譜者一家之史也微寓筆削之權無疎訛之弊然後可免文勝之譏而僉君子皆能尸其事叅徑酌權當無餘感矣若余無狀者仄於其間何有一辭之贅焉

昔에先王이 國을建함에 小史의官을 두어하여금世系를奠하며 昭穆을辨하여 旣民志를定하고 風化을補
 하나니 後世氏族의譜 實로이에昉하나니 張子는 云하되忠義의立함이 그來處를 知한다하고 眉山蘇氏
 는云하되 孝悌의마음이 油然而生한다하니 譜의世敎에關함이 甚히큰지라 仁人君子와 孝子賢孫이 이
 에汲汲히역이지않으리없은지라 어찌疎忽이할바라 우리崔氏가 建國한以來 우리나라巨族이되여 忠烈孝悌
 文章勲業이 一世를鳴한者 磊落相望함이 例를들어 진실로 可히書할지라 蒐合하고 修輯하여서 前人
 의功을續하여 儒素를傳하고 敦睦을示하여 後世에不替케함에 至하얀 또어찌可히謹愼치아니하리오 이
 변일이 多幸한것이 하나요 遺憾되는것이들이니 지나간庚申年譜事時에 우리四派中에 一派가 不幸히
 異心을懷하고 分離코자 하는지라 有識한자 恨을齎함이 오래러니 이제嶠南宗派로부터 合譜의議로써
 首倡함에 國內에布濩되여 있는諸宗이 聲氣로써 應하여 一言에結合이되지라 대개天屬은 可히絶치못
 할것이요 至親은 行路를異치못할지라 花樹가團圓하고 歡欣이和翕한은거동이 卷中에넘쳐흐르는지라
 分하였다다시合하고 疎한者더욱親해짐이 一幸이요 지나간叅判公 草成一卷譜로부터 세番째再癸亥를當
 하여 譜牒卷數가 三十四卷이었드니 百年距離인今日에 總卷數가 五十三卷인즉 子孫이더욱蕃衍함이아
 니라 이우리文成公先祖께서 德을種하시고 功을積하시여 그根源에濬發하심이니라 百世雲仍이追慕함을
 不禁함에 感激함이一이요 修譜所를都齋閣에 終始함에 우리祖上의陟降하시는精靈이 儼然이 承顏을주시는듯
 하여 咸宗이忱惕이여져三年以內에 周旋하여畢役함이 또한 默默히도아주시는것인지라 그感激함이 둘이

라 嗚呼라 譜란 一家의 歷史라 적어도 筆削의 權을 두어 訛誤의 弊가 無한 然後에야 可히 文勝의 譏를 免할지라
僉員이 다 能히 大事를 主張하여 經과 權으로 參酌함이 마땅히 餘憾이 無하거늘 나같은 無狀한者 其間에 仄하여 어
찌 一言의 贅를 有할까

後孫 輔烈 謹識

又

往在 辛亥我先君當譜牒丁乙之役慨然歎曰凡我四派子孫以文成公爲鼻祖則
周德山禮葬方墳雖百世不可傳疑而庚辰設壇之論始作俑者誰也設壇以後墓
所傳疑此後裔之嫌於心者而今旣修譜則其發凡立例當遵荷軒公舊癸亥編輯
之法鎮曰校勘於三治堂而不幸先君捐世未克卒業西坡從叔踵而成之盖上追
荷軒公之遺法傍裒我先考之草藁也然而宗議衲鑿辛亥譜牒之事隨而罷矣甲
寅年偷塚現發二南諸宗同聲血爭先墓歸正此必文成公先靈教我宗典祀也歲
在庚申湖南宗丈南復氏先倡譜議以文成公墓所之急於懸錄也爲先彝衷孰不
影響而從之是以春會百丈夏會道山秋又會印月粵周歲譜事告功而四派不能
同譜但兩派同譜雖若欠收宗族厚風俗之古法而合而分々而合皆是天理升降
則安知異日能無四譜之曰耶今案文成公墓圖辨證西上節越四塚文字已斷
案信筆而舊譜甲龍塚註錄曰塚在文成公兆下噫當日修譜時去先祖墓錄者自

謂盜鈴得計而不免掩耳之拙書甲龍塚錄者抑亦天誘其衷而終爲西人之深目
天可欺乎不可欺者天也傳此墓圖則藏曲阜之履不足以喻其珍也保烏號之弓
不足以比其實也一開卷而昭然如指掌彼誣其祖先歸之疑贗者抑獨何心哉不
肖又忝校正之任奉送草單先君之手澤尚新嗚呼痛哉忘其僭猥收淚敢誌而先
世譜系之記證麗朝官制之卞叙載在舊譜而以工役之浩穰今不復載焉覽者詳
之上之十三年辛酉仲春下澣

後孫 璿植 再拜 謹識

지나간辛亥년에 우리先君이譜役의丁乙을當하사 嘆息하시는말씀이 우리四派子孫이 文成公을鼻祖로모시

였으니 周德山禮葬方憤이 비록百世라도 可히傳疑치 못할것이어늘 庚辰設壇의議論이 누구의所作인가 設

壇後에 墓所에對한傳疑에 心的不安을禁치 못하였다 이제이미修譜하고본즉 그發凡立例함을 마땅히荷軒

公舊癸亥의編輯의規則을따라 鎮日하여三治堂에校勘을얻었으나 不幸히 先君이下世하시매 능히卒業을못

하시고 西波從叔이 뒤를이어 成編하셨으니 대개위로荷軒公의遺法을追述하고 오히려先君의草藁를探索

하였으나 그러나 宗議가不合하여 辛亥譜牒이 따라罷하였드니 甲寅年에 偷塚이發現하여 二南諸宗이

同聲血爭하여 先墓가歸正하였으니 이만다시 文成公先靈이우리계典祀를가르치심이라 歲庚申에至하여 湖

南宗丈 南復氏께서 譜議를先倡하되 譜牒에 文成公墓所懸錄이急하다하시니 그爲先하시는誠心에 누구

影響의從이無할까 이로써 春에百丈에서會하고 夏에道山에서會하고 秋에印月에서會하여 周一年만에
譜事가畢役되었으나 四派가 能히同譜하지 못하고 다만兩派만 同譜하니 비록宗族을 團合하고風俗을厚
케하는古法의 欠事가되나 合하면分하고 分하면 다시合함이 다이天理의升降함인則 어찌異日에 能
히四派同譜의日이없으랴 이제 文成公墓圖辨證을按함에 西上節越四塚文字가 이미斷案과信筆이되고 甲
龍塚錄에이르기를 塚이文成兆下에 有하다하니 噫라 當日修譜時에 先祖墓錄을 譜牒에서뵈는者 스스로
방을도적한피는되나 結局에掩耳의拙한文書밖에 못되나니 甲龍塚이란者 또한하늘이 그心腸을돌려 마침
내 西人の深目이되고말았으니 天을可히欺하라 可히欺치못할者는 天이라 이墓圖을 世上에傳하고보니
曲阜의孔子任의履를 藏하였든들 이에좋은寶物이없고 烏號의弓을간직하였든들 이보다 더뚜렷한증거가
없다하겠다 한번卷을開하면 昭然히내指掌을보는것갓거늘 先祖를誣陷하여 疑質에歸케하는者 홀로
무슨心情인고 不肖 또校正의責任에忝하여 草單을 奉送함에先君の手澤이 오히려 생생한지라 嗚呼痛哉
라 그僭狠함을忘하고 눈물을거두고 敢히誌하되 先世譜系의記證과 麗朝官制의下은 舊譜에叙載되었기
로 그役의浩穰을生覺하고 이제다시 記載치아니하노니 보시는分이 仔詳이살필지이다

全州崔氏先系追錄

一世

崔純爵

高麗靖宗朝登第
策推忠佐理平戒
拓地鎮國功臣門
下侍中政堂左僕
射寶文閣太學士
知兵部尙書檢校
神虎衛上將軍完
山伯諡文烈公○
墓在全州北面

再起

得杵

通憲大夫選部典
書上護軍○夫人
清州郭氏密直預
女南陽洪仁胤外
孫

直杵

禮部侍郎

立杵

政堂學士上護軍

二世

子崇

中正大夫藝文館
提學判禮部事戶
部尙書左右衛中
郎將

七世

子宰

文貞公

移貫楊州

子阿

文成公

三世

子南敷

通議大夫修文殿
太學士工部尙書
左右衛大將軍完
山伯諡文康公

四世

子佺

朝散大夫秘書監
尹左右衛保勝郎
將○夫人玄風郭
氏苞山君元振女
門下評理白川趙
雲卿外孫

五世

子正臣

中正大夫兵部侍
郎寶文閣知製敎
三司副使左右衛
中郎將○夫人銀
川姜氏進封尙書
僕射復興君公輔
女

六世

子得杵

子直杵

子立杵